

# 메신저피싱 피해, 4배 가까이 늘어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지인을 사칭한 뒤 돈을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피해가 최근 급증 정부 차원의 대국민 피해 예방 메시지가 발송된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부터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메신저 피싱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통신협회·이동통신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이뤄진다.

메신저 피싱은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지인에게 접근, 휴대

### 1~10월 114억원 피해, 1년 새 264% 늘어 경찰, 대국민 피해 예방 문자 발송하기로 거절 힘든 자녀 등 사칭...50~60대 표적 “본인 확인 안 된 상태로 절대 송금 안 돼”

전화 고장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고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원 이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의 범행이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가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은 약 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38억원) 대비 약 264%가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

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라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 피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도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스

##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여성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승강이를 하다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5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50)씨의 신체 일부에 흉기를 1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6개월 전부터 동거하고 있으며, 이날 함께 술을 마신 뒤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생일을 챙겨주지 않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화를 참지 못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 노래방서 여주인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께 광주 북구 한 노래방 주방에서 주인 B(59·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B씨가 노래방을 개업한 이후 ‘순납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노래방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 강릉 펜션서 고3 남학생 4명 사망·6명 중태

18일 오후 1시14분께 강원 강릉시 저동 모 펜션에서 투숙 중이던 내년도 수능시험을 끝낸 서울지역 고교에 재학 중인 고3 남학생 10명 중 4명이 숨지고 6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이들은 구토와 함께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또 사건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

6명의 부상자들은 고압산소치료 시설을 갖춘 강릉야생병원, 강릉등산병원, 강릉고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들인 이들은 내년 수능시험이 끝남에 따라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아 강릉으로 여행을 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이 묵은 펜션 방 안에서 번개탄이 발견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만 가스 보일러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중독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만취운전자 다른 운전자와 시비로 덜미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만취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A(46)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4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200m 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였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며 상대 운전자가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 “집에 돈 보관해라” 보이스피싱 수금책 검거

전환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집에서 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14일 경찰 수사과정을 사칭해 B(69·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예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모두 찾아서 사람에게 보관하라”고 속였다.

이 말에 속은 B씨는 은행에서 현금 200만원을 찾아 집에 보관했다. B씨가 외출한 사이 A씨는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쳤다.

## 5·18 계엄군 수습 명

### 국립현충원 버젓이 안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총칼을 휘두른 계엄군 가운데 상당수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계엄군 중 국가유공자 사망자 대부분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5·18 계엄군 책임자 급인 소령 5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현재 생존자들 역시 사망할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73명 중 56명(76.7%)은 어떠한 심의 절차도 없이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5월 항쟁이 일어난 1980년 당시 국방부와 경찰이 보훈처에 제출한 한 장의 확인서만을 근거자료로 계엄군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이 지난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취소를 촉구했으나 보훈처는 국방부에서 해당자에 대한 사망과 부상 재심사를 진행하면(보훈처에서도) 재심사를 하겠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보훈처 입장에 국방부는 ‘국가인 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재심사를 하겠다’며 인권위와 권익위에 공을 넘겼고, 이에 인권위와 권익위는 ‘국방부가 직권으로 심사가능한 사안’이라고 답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발뺌하는 형국이다.

뉴스스



아기 예수 기다리는 명동성당 구유 성탄절을 앞두고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 설치된 구유 앞에서 한 시민이 구유를 바라보고 있다. 아기 예수는 24일 설치될 예정이다.

## 대학배구연맹 중계권료 횡령 의혹 해남·청양군으로 ‘불뚝’

한국대학배구연맹이 대회 중계권료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을 지원했던 전남 해남군과 충남 청양군 등 지자체로 ‘불뚝’이 옮겨 붙었다.

18일 해남군과 청양군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한국대학배구연맹에 지원한 배구대회 보조금 관련 수사 자료를 시작했다.

해남경찰서는 지난 17일 해남군이 배구연맹에 3년간 지원한 보조금 관련 서류를 확보해 확인 중이다.

해남군은 지난 3년간 대학배구연맹에 회당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3회에 걸쳐 지급했다.

의혹이 제기된 중계권료는 올해 정산서류에 5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계권료는 A인터

넷방송에 집행됐다. 대학배구연맹은 올해 6월 해남에서 대회를 개최했다.

청양경찰서도 최근 청양군이 대학배구연맹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 서류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지난 7월 청양에서 열린 배구대회에 청양군은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3300만원이 중계권료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3300만원은 한 달 전 열린 해남대회 중계권료보다 6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해남대회를 중계한 A인터넷방송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배구연맹은 한 종편 방송사와 5년간 무료중계 협약을 맺고도 A인터넷방송과 유료로 중계 협약을 맺어 의혹을 받고 있다.

A인터넷방송 대표가 배구업계에

서 활동하고 있어 대학배구연맹이 A인터넷방송과 중계 협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배구연맹의 중계권료 횡령 의혹이 있어 수사중이다”며 “현재 군청 관계자와 배구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배구연맹 측 관계자는 중계권료 의혹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반면 A인터넷방송 대표는 “중계권료로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받고 있다”며 “중계권료를 받았다가 대학배구연맹에 다시 돌려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뉴스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